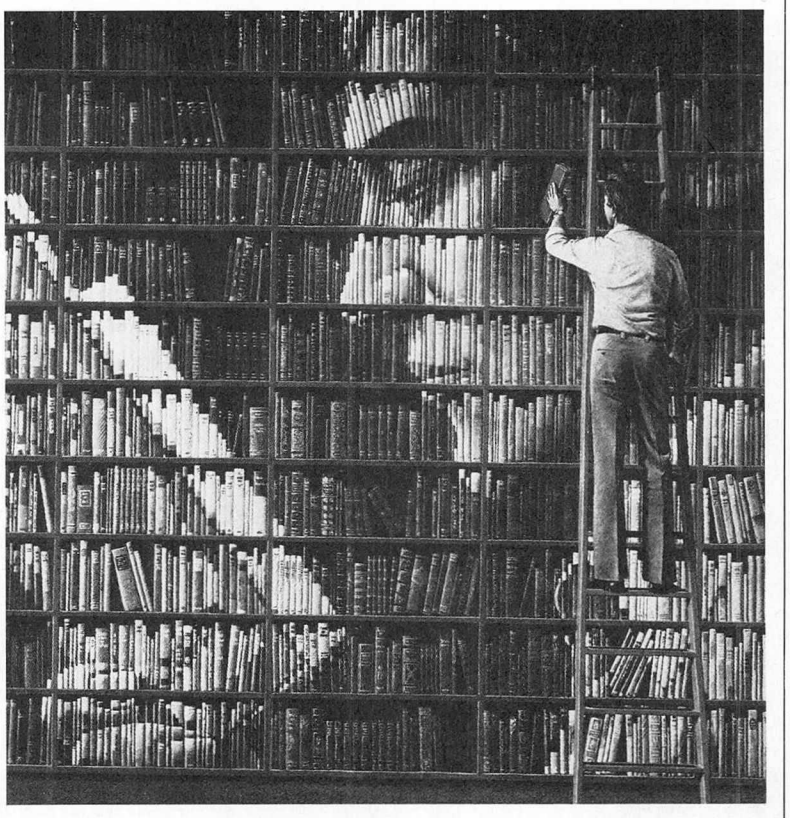
세계의 추천도서 1

'사랑의 길'로 가는 門열기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어떤 책을 읽을까

"우리들이 읽고자 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 혹은 우리들 감정에 역행하는 작품, 또는 그 작품 속에 몰두할 수 없는 작품, 이러한 작품들을 애써 참아가면서 자기의 것을 만들고자 하지 말고, 그러한 작품들은 포기해버리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나 혹은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일정한 종류의 책을 읽도록 격려하거나 권유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아니 참다운 독서 그 자체를 한평생 싫어하게 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헤르만 헷세의 의견이다. 그리고 대단히 옳고 중요한 견해이다.

우리는 쉽게 책을 읽으라고 말한다. 책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에 관한한 누구도 異見을 갖고 있지 않을만큼 독서의 권유는 절대다수의 합의이다. 그러나 무엇을 읽을까에는 합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은 어떠한 기준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에게서 독서권유에의 목록은 겨우 두 거점에서만 이루어진다. 하나의 거점은 언론매체이다. 신문과 방송과 또는 잡지들이 그것도 가을철 독서주간이라는 행사에 맞추어, 참으로 도식적으로 사회저명인사들의 추천목록들을 열개나 또는 스무개쯤씩 소개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의 목록은 거의 일률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의 몇십년 전 젊었을 때의 기억이거나 또는 자신의 최근의 관심사 영역의 책들일 뿐이다. 권유대상자도 분명치 않고, 또 더욱 왜 권유하는지의 의사도 설명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版本의 摘示도 생략된다. 예컨대 그저 「論語」라고 말한다. 또는 「老子」라고 쓰기만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누구의 譯本이고 누구의 註釋本인가가 論語나 老子에서는 더 중요하다. 특히 老子는 지금 우리에게 권유할 만한 版本이 있지도 않다(물론 異見이 있겠지만 필자로서 권유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版本이 하나 있기는 있었는데, 이미 20년 전에 絶版상태이다)그러므로 책의 목록은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산만하고 무의미하기까지 하다.

또하나의 거점은, 가장 당연한 거점이기도 한 교육과정에서이다. 물론 초중고 교육과정에 일관되게 책읽기가 요구돼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의 책읽기는 아다시피 명목일 뿐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다같이 힘을 모아 책읽기를 오히려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겨우 중학과정에서만 책읽기가 시행된다.

그러나 이것도 목록의 기준은 거의 야만적이다. 담당교사의 능력이 어느 수준이냐는 차치하고서라도 독후감써내기라는 제도가 부과돼서, 목록중심이라기보다는 독후감을 쉽게 써낼 대상의 책이 무엇이냐에 더 중점을 두게 된다. 때문에 자주 책값이 싸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게 된다. 그리고 독후감은 또 규격화된다. 답안용 독후감을 써서 팔기까지 하고 있는 학교주변 문방구를 찾아내는 일은 지금 우리에게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잘 정리된 추천도서목록이 있다고 해도 문제의 해결이 적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헤르만 헷세가 지적하고 있듯이, 아무리 잘 조직된 추천도서목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책을 읽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각기 다른 반응과 수용, 다시 말해서 느낌과 理解度의 차이라는 것이 또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헷세는 독서야말로 '의무의 길'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길'로서만 걸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헷세의 '사랑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갈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랑의 갈망이란 물론 독서의 욕구이고, 사랑의 능력이란 읽기 이전에 읽기자료들에 대한 정보의 기초와 분별의 기준들이다.

바람직한 추천목록이란

헷세의 권유대로 개인적으로는 모든 목록들을 버릴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버리는 기회도, 가지는 기회도 누군가가 마련한 추천목록들이 있을 때 다양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차원과 여러 시각에서 그나름대로 각기 다른 추천도서목록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또 평가되고 전수되어오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때로는 추천도서목록 자체가 고전적 평가까지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추천목록 자체가 하나의 독서대상도서로서 재추천되는 영예까지 얻는다.

누군가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의 목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사상이나 하나의 이론적 체계화를 위해서 선별구성되는 도서목록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의도의 목록일수록 어느 한 주제나 영역에 있어서 훌륭한 추천도서목록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추천도서목록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유능한 편집기획자에 의해서 한 시대나 한 역사를 재정리하는 관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도서들이 재평가 조립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사후적으로 개성적이며 체계적인 목록으로 성립된다.

이러한 것들을 추천도서목록이라 하고, 또 이것들을 함께 일별해 볼 수 있을 때 독서로 향하는 사랑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이 증진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초적 작업도 마련해 보지 않고 있다. 그저 책을 읽으라고만 말했지 실제로는 읽히지도 않고, 읽도록 무엇인가 준비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더욱 아무것이나 무심히 말로만 하는 추천까지 하고 있다.

이 글은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특별한 현실에 대해, 우리가 책읽기를 권유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마련해야 될 권유목록 그 자체의 정지작업을 위해 모험적 시도로서 씌어진다.

책을 읽으라고 쉽게 말한다.
그러나 무엇을 읽을까에는
합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실은 아무런 기준도 없다.
흔히 읽기를 권유하는
추천도서목록이란 것도
내용이 무책임하거나 산만하기가 일쑤다.
이미 일정한 평가를 얻은
세계적인 추천도서목록이라 할지라도,
그 평가는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이 글은 책읽기를 권유하는 일에
선행돼야 할 권유목록의 정지작업을 위해
세계적인 추천도서들을
살피는 데 뜻이 있다.

이미 일정한 평가를 얻은 세계적 추천도서목록이라 할지라도, 그 평가는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어려움이 그 첫째이다.

바로 최근에 미국 스탠퍼드大에서는 서구

문명강좌를 위한 필독추천도서 '고전걸작'(Great Books) 30권의 목록이 비판적 논쟁에 걸려 있다. 그동안 목록이 백인 · 남성저자 중심이 아니었느냐는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여성 · 소수민족 및 유색인종의 학자 · 사상가들의 저작들이 새롭게 추가되어야 한다는 태도와 이에 대한 보수적 태도가 격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쟁 속에 고전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도 나오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이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 추천도서이냐 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 사례이다.

두번째의 어려움은 세계적 추천도서목록을 나열함에 있어 그 상당부분이 우리말 譯本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데 대한 무의미함이다. 뿐만 아니라 다행히 간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과연 그 譯本이 읽기를 안심하고 권장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일이 실은 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별수 없이 목록만으로 말해야 할 경우, 그 목록 題名만에 대한 우리말 번역이 적정한 의미전달로서 가능한 것이냐의 문제도 있다.

세번째의 어려움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대상의 목록이냐 하는 근본적 시각이다. 우리의 한 외교관이 프랑스의 상대외교관과 나누었던 대화가 있다. "당신네 나라에서는 우리 프랑스 작가들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다. 앙드레 지드, 사르트르, 카뮈, 그리고 발자크들의 작품이 거의 다 번역돼 있고 또 모두 읽고 있다" "그런가. 그러나 왜 발자크를 읽는가. 우리도 이미 읽고 있지 않는데!"—이 逸話는 물론 우리의 외교관 얼굴을 남몰래 화끈거리게 하는 데서 끝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은 대단히 핵심적인 독서의 과제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을 가능한한 중용적으로 극복해 보려 한다.

古典목록과 現代목록, 번역본과 미번역본, 여전히 읽어서 가치가 있을 것과 버려도 될 것들 사이에서, 오늘 이 시대의 교양이 책의 목록들 사이에서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균형점인가를 별도로 논평을 해나감으로써 이 일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좋은 책'의 선택기준

또다시 말해서 책을 읽으라는 말은 쉽지만 책을 읽는다는 일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이것은 추천도서목록 만들기보다 물론 더 어렵다.

네일 포스트먼과 같은 미국 뉴욕大 영어학교수는 '독서란 낡은 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며, 그것은 정치적 체제나 이데올로기에 인간을 종속시키는 기능밖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강경한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다. 우리도 우리의 현상에서 그러한 경향을 우파적 사상경향에서나 좌파적 사상경향에서 같이 조금은 느끼고 있다.

그러나 독서란 여전히 인간의 審美的 삶의 향상을 위해서 가장 탁월하고 효율적인 행위이다. 독서는 지식의 획득과 학습으로서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삶을 영위해나가는 가장 큰 정신의 지주로서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다. 책을 일상적으로 읽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절망하는 사람은 없고, 좌절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이 TV나 컴퓨터에 더 능숙한 사람들과의 기본적인 차이이다.

그리고 더 많은 책을 읽을 때 그는 어느 한 영역의 사상에 결코 종속되지도 않는다. 종속되거나 편향된다는 것은 책을 조금씩밖에는 읽지 않았을 때일 뿐이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제한된 추천도서목록이라 하더라도 그 목록들이 함께 모여 다양성을 보여줄 때 이들 추천도서목록들의 하나씩의 부족함이 서로 보완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애들러(M.Adler)의 좋은 책 선택기준이라는 게 있다.

1. 가장 오랜 세월을 두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추천하는 책
2.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독자로 삼고 쓴 책
3. 특정 시대성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새롭게 읽을 수 있게 쓴 책
4. 뜻의 이해와 표현의 멋을 경험할 수 있게 쓴 책
5. 가장 크게 깨닫고 가장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
6. 가장 중요하면서도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를 다룬 책

이 역시 각기 다른 견해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에 공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세계의 추천도서'들도 이 견해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저작구상

'講壇美學'의 사회화 겨냥

「社會美學」

金文煥
서울대 인문대 교수 · 미학

미학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학문으로 방치하게 된 이른바 '강단미학'의 상태에서 구출, 미학이 인간생활에서 제법 생동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해보자는 것이 나의 목표다.

철학에 관심을 둔 사람이라면 '社會哲學'이라는 학문명칭을 그리 낯설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정작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꼭 의견이 일치된 것은 아닌 듯싶다. 필자의 경우 이 말을 떠올릴 때, 실상 막스 호르크하이머를 염두에 두고 있다. 1930년 프랑크푸르트대학은 그를 위해 사회철학이라는 아마도 당시로서는 최초의 강좌를 개설하고 그를 정교수로 받아들였다. 그 이듬해인 1931년에는 그가 실질적인 중심이었던 사회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게 되는데, 그 취임강연의 제목이 '사회철학의 현황과 사회연구조사소의 과제'였다. 40세를 아직도 3년이나 남겨놓은 약관의 학자가 펼친 미래의 청사진이라고나 할까?

사회철학은 그에게 있어서 독일 내에서 다시 머리를 든 체계적인 강단철학에 대한 하나의 대립항목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우선 하나의 분명한 경험적 이론의 성격을 띤다. 엥겔스로부터 출발하는 정통마르크시즘의 결정론을 포함하여 모든 교조주의적 결정론들과 맞서면서 그는 인간행동의 자율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철학은 인간의 주도권을 속박하고 개별학문들의 결과를 무시하는 폐쇄적 체계를 제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의 사회철학의 기본동기가 되는 셈이다. 후에 비판이론과 통칭되는 이러한 이론정향의 목표는 결국 사회생활의 과정들을 그 당시 가능한 이해 수준에 따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서 경험적인 강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조사에 있어서 전체 사회의 과정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의 이론적인 중심과제로 존재한다.

필자가 '社會美學'이라는 낯선 표제를 단 저작을 구상할 때 바로 이 호르크하이머를 비롯한 이른바 비판이론에 속하는 학자들의 미학사상이 중심을 차지한다. 우리에게도 이미 부분적으로나마 알려져 있긴 하지만, 필자로서는 보다 종합적인 견지에서 예술을 통해 전체 사회의 과정을 인식해보고자 한 그들의 노력을 재구성해보려고 한다.

그러자니 자연히 시대를 좀더 거슬러 올라가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동시대적 성격을 공유하면서도 그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루카치, 블로흐, 심지어는 하이데거에게서 예술과 사회가 어떤 연관 속에서 고찰되는가도 살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뿐 아니라, 비판이론의 전통속에서 독창적인 학문세계를 다져가는 하버마스에게서 가능할 미학이론의 추적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아울러서 이른바 예술사회학 쪽에서 전통적 미학에 대한 공격을 감안하면서 미학의 영역을 확보하고 싶은 욕구도 무시못할 정도로 강하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에서 현대미학사상과 예술사회학 등의 강의를 해가면서 근근 기초적인 자료들을 대충 엮어놓은 셈이지만, 아직 목차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나치게 범위를 넓게 잡음으로써 실속이 없게될 것이 두렵기도 하다. 그러나 목표만큼은 비교적 뚜렷하다. 그것은 곧 미학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학문으로 방치하게 된 이른바 '강단미학'의 상태에서 구출하여, 미학과 미학이 다루는 대상영역으로 하여금 인간생활에서 제법 생동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해보자는 것이다. 평생을 다 바쳐도 못이룰 꿈일망정 조금씩 실현해 보려는 결의마저 없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